



천년을 새로이 여는 신사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고분자학회도 올해 25주년이 되어 25세의 청년기에 들어섰습니다. 1975년 학회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영광스럽게 참여하여 1976년 학회 발기인으로 또 초대 “폴리머”지 편집위원으로 학회 일을 시작하였으며 학회 로고 제정과 “폴리머”지 창간호의 디자인을 의논하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 금년에는 제가 학회 회장으로 한해동안 학회운동을 맡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1979년 기획이사로 일하면서 첫 산학협동 프로그램인 제1회 고분자 하계대학을 속리산에서 개최하였고 그해 10월에는 첫 국제 심포지움인 제1회 한일 고분자 심포지움을 KIST 존슨강당에서 개최하면서 당시 경도대학의 고 Nakajima교수, 동경농공대의 Miyata교수, 일본고분자학회의 고 Takahiko 사무총장을 만나 그 이후 20여년에 걸친 교류가 있었으며 Nakajima교수가 맡으셨던 IUPAC 고분자 구조-물성 분과위원회의 동아시아 회장을 제가 중국 화학연구소의 Qian박사, 경도대의 Masuda교수에 이어 4대 회장으로 승계하고, IUPAC 고분자 분과위원회의 Titular Member도 승계하게 되어, 학회 초기에 맺은 인연으로 국제 고분자 학계로 발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 수석부회장 출마시에 밝힌 바와 같이 고분자학회를 통해 제가 발전하였고 가장 학회의 혜택을 많이 받은 회원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학회에 걸맞는 활발한 활동을 금년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초기에 우리 학회가 가졌던 산학협동이 가장 활발한 학회라는 이미지가 최근에는 많이 퇴색하여 산업계 회원의 수도 많이 감소하였고 또 학회의 여러 사업이 학교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학술 발표회에서도 산업계가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산학 협력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중점을 둘 분야는 학회의 전산화 작업입니다. 학회지 원고의 투고에서부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학회홍보와 회원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점을 둘 분야는 “폴리머”지와 영문학술지를 국제적인 학술지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고분자 분야의 연구에서 우리 회원들의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새로 맡으신 편집위원장들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학회 일을 맡아주신 김광웅 전회장님, 이상원 전무이사님과 여러 운영이사들께 감사드리고 올해 학회 일을 맡은 이두성 전무이사와 운영이사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학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1월 1일

신임회장 김 성 철